

당뇨병의 신경장애는 당뇨병의 여러가지 합병증중에서 가장 흔히 환자들에게 고통을 준다. 이러한 당뇨병의 신경장애는 당뇨병의 자각증세가 없더라도 그에 앞서올 수가 있고, 5년이상 당뇨병을 앓아온 환자에서는 약 반수이상인 신경장애를 가지고 있다.

신경합병증중 가장 많이 발병

신경장애중 가장 많이 오는 형태가 다발성

당뇨병의 다발성 신경장애

신경장애로서 그 발생기전이나 원인이 확실히 규명되어 있지않고, 또한 특별한 치료방법도 현재까지는 없기때문에 의사나 당뇨병 환자의 가장 큰 관심거리의 하나이다.

다발성 신경장애는 30세이하의 당뇨병환자에서는 드물게 나타나고, 50세이상의 고령환자에서 흔히 나타나며, 당뇨병을 앓아온 기간이 길수록, 음주량이 많을수록, 당뇨병의 조절상태가 나쁠수록, 영양상태가 나쁠수록, 혈관장애가 심하고 많을수록 흔하다.

다발성 신경장애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에 모두 올수 있는데, 혈당을 조절한후에 좋아 지거나 급성으로 생긴 경우에는 신경의 기능만 저하된 경우이며 만성적으로 점차 발생한



경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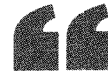
〈이대부속병원 · 내과〉

경우는 신경자체의 구조가 변화된 경우로서, 완전한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

다발성 신경장애의 증세는 환자자신도 모르는 사이 서서히 진행되면서 특히 양측 발이나 다리의 통증, 감각의 이상이나 감각이 없어지게 되기도 한다. 통증은 경하게 저린 느낌부터 시작하여, 화끈거리거나 따가운 느낌, 때로는 조여드는 듯한 통증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며 특히 밤에 심해져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잠잘때 이불이나 옷이 닿아도 아프게 느끼거나, 기온이 낮아지면 통증이 더 심해진다. 환자들은 「발바닥이 타는것 같다」「발이 내발같지 않다」「구름위를 걷는 것 같다」고 표현한다. 이러한 증세는 대부분 손이나 발에 장갑을 끼거나 양말을 신은 것과 같이 생기나 때로는 앞가슴이나 배에 생기기도 한다.

통증은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수개월 내지 수년후 신경이 파괴되고 나면 저절로 소실되며 이때는 감각을 느끼지 못하므로 상처를 받기 쉽고 이렇게 상처를 입고나면 세균에 감염이 되기 쉬워서 손이나 발을 절단하게 되는 괴사(썩어들어가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수도 있다.**

운동신경의 장애는 발뒤꿈치의 아킬레스건(힘줄)이나 무릎건의 운동반사가 소실되거나, 근육의 위축및 운동능력의 감소이며, 특히 엄지발가락의 근육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근육의 힘이 약해지므로 걸을때에 자세가 정상이 아니게 되고 이러한 자세의 이상이 발에 각화증을 생기게 하며 발모양의 변화를 일으켜서 자주 부딪히거나 상처를 입기 쉽다.



이러한 증세는 대부분 손이나 발에 장갑을 끼거나 양말을 신은 것과 같이 생기나 때로는 앞가슴이나 배에 생기기도 한다.



50세 고령환자가 대부분

당뇨병에서 생긴 다발성 신경장애의 특이한 치료방법은 없으나, **가장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혈당을 정상에 가깝게 조절해 주는 것이다.** 기왕에 생긴 장애는 혈당을 잘 조절하여줌으로써 신경의 기능적인 저하만 되어 있는 경우는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증세가 개선되며 신경에 이미 구조적인 변화가 온 경우는 더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한다.

약물치료로는 알도즈환원효소억제제(솔비닐), 갱글리노사이드제제(클로나실), 프로스타글란딘E, 비타민B복합체등의 사용이 시도되어지고 있으나 어느것도 확실한 치료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다발성 신경장애의 가장 흔한 증세가 사지의 통증이므로 통증의 조절은 사실 가장 중요하며 실제적인 문제이다. 아스피린을 비롯한 진통제와 비스테로이드성소염제를 사용하기 시작하나 현저한 효과가 없어서 강한 진통제를 사용하게 되는 수가 많으며 이때 환



자는 함부로 약을 사서 먹거나 남용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그 처방대로 복용하여야 한다. 또한 **너무 약물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규칙적인 더운물찜질등을 병용하기도 한다.**

최선의 치료법은 정상혈당치 유지

통증이 대개 밤에 심해지기 때문에 취침전 벤조다이아제핀 계통의 진정제 복용이 도움이 될 수 있고, 잠자는 도중 통증이 옷이나 이불이 닿아서 더 심해지지 않도록 지지대를 세워주며, 통증발생부위를 알맞게 보온하여 차가와지지 않도록 한다.

우울증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 항우울제 및 페노싸이아진계 약물의 병용요법을 사용하기도 하나 이경우 몸을 일으킬때 어지럼증이 생기는 기립성 저혈압이 올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통증이나 온도에 대해 감각을 잘 느끼지 못하는 지각이상인 경우 사지의 말단부위에 상처나 화상을 입기 쉽기때문에 환자는 **항상 자신의 손과 발이 상처가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발의 압박을 잘받는 부위에 못이나 티눈이 있는지 잘보고, 있을 때는 함부로 손톱깎이나 칼로 제거하려고 하지말고 병원에서 제거받도록 한다.

너무 꼭맞고 딱딱한 신발을 신거나 여자의 경우 꼭 끼는 버선을 신지 않도록 하며, 항상 조이지 않는 천연섬유의 양말을 착용하고 뜨거운 물로 찜질할때나 온돌방에서 잘때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한다.

운동기능이 약해진 경우 근육의 위축이나 관절의 변형을 초래하게 되는데 우선 당분간은 휴식을 취하고 때에 따라서는 관절의 변형이 심해서 관절을 고정시키는 수술이나 건(힘줄)을 이식해주는 수술이 필요하기도 하다. ㉞